

# '수능 끝나고 뭐 먹지' 외식업체가 크게 쏜다

## 수능 D-1...외식업체 이벤트 봇물

아웃백·빔스 등 할인 이벤트 파파리바게뜨는 합격기원 제품 선배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음료 및 외식업체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인기 메뉴 할인혜택과 무료 증정, 수능 패키지는 물론 무료 식사권까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벤트를 살펴봤다.

### ●아웃백, 모든 수험생에 혜택 제공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Fly High, 내 꿈에 날개를 달아줘' 응원 이벤트를 마련했다. 수능시험 당일인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수능 수험표뿐만 아니라 토익, 공무원, 자격증, 고시 등 2014년도에 응시한 모든 시험의 수험표를 가지고 아웃백 매장을 방문하면 아웃백의 인기 애플타이저 '그릴드 쿠키부라앙'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릴드 쿠키부라앙은 그릴에 구워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닭날개 요리로, 신선한 셀러리 스틱, 블루치즈 드레싱과 함께 제공되는 아웃백의 스테디셀러 메뉴다. 이벤트 혜택은 제휴할인 적용 전 주문금액 기준으로 3만 원 이상 주문 시 이용 가능하다.

### ●오리온 초코파이, 수험생 응원 열정 이벤트

오리온에서는 수험생 손글씨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수험생이나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초코파이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chocopie.co.kr)에 올리면 된다. 추첨을 통해 5만 원 상당의 아웃백 식사권(50명), 1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음료 카드(50명), 초코파이 교환 모바일 쿠폰(1000명)을 제공한다. 응모기간은 11월 1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11월 19일이다.

### ●빔스, 수험생 가격제 33% 할인

프리미엄 스테이크 하우스 빔스는 11월 13~12월7일까지 '빔스 수험생 가격제'를 선보인다. 수능 수험표를 제시하면 기존보다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1인 샐러드 바를 즐길 수 있다. 수험생 가격은 평일 점심 1만3900원, 평일 저녁 1만9900원, 주말 2만1900원이다. 수험표를 제시한 본인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타 쿠폰 및 제휴 할인 중복은 불가하다.



‘맛있게 먹고 만점 받으세요.’ 식음료 및 외식업체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손글씨 이벤트를 진행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수험생에게 애플타이저를 제공하는 아웃백, 학교를 방문해 피자과 럭키백을 선물하는 미스터피자(맨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오리온·아웃백·미스터피자

### ●차이나팩토리, 특별 할인 혜택

차이나츠 레스토랑 차이나팩토리는 11월 13~12월12일까지 수험생을 위해 매장별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강남역점, 올림픽공원점 등 7개 매장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1인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 본인을 제외한 성인 2인 이상 동반 시 적용된다. 또 같은 기간 내 판교 아비뉴프랑,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한 캐주얼 콘셉트의 달라이트 매장에서는 수험표를 내면 칸공기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타 쿠폰 및 제휴 할인 중복은 불가하다.

### ●더플레이스, 수험생 30% 할인

이탈리안 캐주얼 레스토랑 더플레이스는 11월13일부터 11월 말까지 수험표를 제시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화문점, 강남역점 매장에서 진행하며 주문 전 수험표를 보여주면 된다. 할인은 테이블 당 1회 적용되며 타 쿠폰 및 제휴 할인 중복은 불가하다.

### ●파리바게뜨 '합격기원 제품 60종' 출시

파리바게뜨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마음을 메시지로 적어 만든 '합격기원 제품

60종'을 출시했다. '말하는 대로 합격'을 주제로 한 이번 합격기원 제품은 '합격감잡이 토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돼지', '합격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 '꿈을 응원하는 파랑새' 등 행운을 상징하는 4가지 블루메신저가 전하는 합격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수험생 두뇌 회전에 좋은 견과류를 활용한 떡과 쿠키를 다양화해 수험생의 컨디션과 건강까지 배려했다.

### ●삼립식품 '오메가 밸런스 달걀' 출시

수험생을 위한 계란도 등장했다. 삼립식품은 서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달걀인 '오메가 밸런스 달걀'을 출시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지방산 비율을 1:4로 맞춘 제품으로 DHA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12월까지 4800원인 '오메가 밸런스 달걀'을 39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 ●맥도날드, 수능 만원책 출시

맥도날드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을 위해 11월12~11월 15일까지 9가지 '행복의 나라 메뉴'를 1만

원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수능 만원책'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수능 수험표 또는 학생증을 가지고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 토마토 치즈버거를 비롯해 불고기 버거, 맥치킨 등 버거 3종류와 후렌치 후라이, 맥너겟, 딸기 스티에 아이스크림, 프리미엄 로스트 원두커피, 콜라 2잔 등 총 9가지 행복의 나라 메뉴를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각 제품을 개별 구매했을 때에 비해 3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 ●미스터피자, '찾아가는 응원 이벤트'

미스터피자는 수험생들을 위해 '피자'와 '럭키백'을 증정하는 '찾아가는 합격기원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미스터피자 페이스북에 우리 반 사연을 응모하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포테이토 피자(L)10판과 수험생 필수 아이템으로 구성된 럭키백을 합격 기원 선물로 전달한다. 응모는 17일까지, 또 9900원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피자 3종·샐러드·음료를 무제한 제공하는 평일(오전 11시~오후 2시) 런치뷔페를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 쉬는 시간 스트레칭 3분 긴장 완화...수능점수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이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경직된 자세로 공부를 하다보면 근육이 뭉치면서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압박하게 된다. 이로 인해 목과 어깨가 빠근해지는 통증과 두통을 유발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수험생이 많이 겪는 근막통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근막통증후군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근육의 경직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만으로 호전되지만 수능 당일까지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증 유발점을 찾아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수능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시험 당일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아침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입시 한파'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추위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근육을 경직되게 한다. 따라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도 목과 어깨를 감싸면 근육이 굳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수험생들은 과목에 따라 적게는 40분, 많게는 100분 동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심호흡으로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는 시간마다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근육을 풀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다. 3분 정도의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 집중력을 높여준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대고 허리는 등받이에 밀착시키며 다리는 꼬지 말고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좋다. 통증이 있을 경우 허리 뒤에 받침 쿠션이나 발아래 놓을 발 받침대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  
도움말 | 날개병원 김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① 한쪽 팔을 몸쪽으로 당긴다. ② 머리 뒷쪽으로 팔을 들어 위치하고 다른 손을 팔꿈치를 잡아 아래쪽으로 당긴다. ③ 양손을 번갈아 이용해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당긴다. ④ 양손을 깎지 끼고 고개 뒤에 대고 머리를 젖힌다. ⑤ 양 팔을 하늘로 뻗은 후 상체를 옆으로 기울인다. ⑥ 등을 둥글게 구부려 앞으로 민다.

## 강원랜드, 공익신고제 적극 활용

강원랜드가 공익신고와 보상금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랜드는 감사실을 통해 2010년부터 금품수수, 횡령, 절취, 게임이나 칩스 조작행위 등 임직원이나 외부인의 비윤리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보상금은 1인 최대 10억원이며 위조 칩, 수표, 카드 신고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감사실이나 공익신고센터(http://kangwonland.hig1.com)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신분보호, 불이익금지 조치 등의 보호를 받는다.

## 파라다이스 그룹, 새 CI 발표

파라다이스 그룹이 16년 만에 새로운 그룹 CI(Corp Identity:기업 통합 이미지·사진)를 발표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11일 오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CI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파라다이스

그룹의 CI는 1998년 발표된 행운을 상징하는 7개의 선과 면으로 구성된 7개 계단의 이미지였다. 새 그룹 CI의 콘셉트는 '창조의 나무'로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P(나)에서 출발해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하는 그룹의 전략과 비전을 표현했다. 동그라미 형상은 성장의 결실을 국가와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창업이념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에버랜드의 새 대표 캐릭터로 활약할 레니(왼쪽)와 라라. 에버랜드는 아기 사자를 모델로 한 이 캐릭터를 앞으로 퍼레이드와 캐릭터 상품 등 물론이고 웹툰, 출판물에서도 주인공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에버랜드

## 에버랜드의 새 마스코트 레니·라라를 소개합니다

10년만에 교체...15일 퍼레이드 등 첫 선

테마파크 에버랜드가 10년 만에 캐릭터를 교체한다. 에버랜드는 2016년 개장 30주년과 장미축제 30년을 앞 두고 파크의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를 15일 공개했다. 레니와 라라는 2005년부터 10년간 에버랜드의 대표 캐릭터였던 라시언과 라이라의 뒤를 이어 앞으로 각종 퍼레이드와 캐릭터 상품 등에서 새롭게 파크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동한다.

에버랜드의 파크 대표 캐릭터의 교체는 호텔, 수목원 등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과 맞물려 글로벌 레저단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캐릭터 이름을 레니(Lenny), 라라(Lara) 등 발음하기 쉬운 영어로 지은 것도 올해 처음으로 전체 입장객의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방문객까지 고려한 포석이다.

새 캐릭터 레니와 라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버랜드 동물원의 인기 동물이자 삼성 그룹을 상징하는 사자를 모티브로 했다. 레니와 라라는 15일부터 퍼레이드와 캐릭터 그리팅, 포토타입 등을 통해 고객들과 만날 예정이며 규어, 인형, 쿠션, 팝콘통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도 개발한다. 또 에버랜드는 앞으로 레니와 라라 캐릭터를 출판,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15일 캐릭터 세리모니와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후 5시30분 장미원의 '레니의 로맨틱 매지트리'에서 환영식을 열고, 기존 캐릭터 라시언과 라이라가 탄생한 2005년부터 10년째 연간회원인 인근 지역 고객을 초대해 선물을 증정한다. 또 새 캐릭터 레니, 라라의 탄생일과 같은 11월15일생 고객들은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에버랜드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 오비맥주 '더 프리미어 OB' 출시

독일 '장기숙성공법' 적용한 올몰트 맥주

오비맥주는 11월 100% 독일 노블홀과 독일 황실 양조장 효과를 사용해 더 풍부하고 진한 맛을 낸 정통 독일식 올몰트(All Malt) 맥주 '더 프리미어 OB(사진)'를 공개했다. 오비맥주가 'OB' 시리즈의 신제품을 낸 것은 1953년 OB 브랜드 첫 출시 이후 'OB 라거'(1997년) 'OB'(2003년) 'OB블루'(2006년) 'OB골드 라거'(2011년) 등을 거쳐 이번이 열한 번째다.

더 프리미어 OB는 프리미엄 올몰트 맥주다. 기존 제품인 OB골드라거에 비해 숙성기간을 3배가량 늘린 '장기숙성공법'을 적용했다. 맥주 제조과정 중 발효한 맥주를 일 반 맥주보다 오랫동안 저온으로 숙성하는 제조방법으로, 맥주 분고장인 독일의 전통적인 맥주 제조 방식이다. 오비맥주의 브루마스터들은 최적의 숙성시간을 연구한 끝에 중전 OB브랜드인 OB골드라거에 비해 전발효 단계 이후의 숙성기간을 늘린 장기숙성공법을 찾아내 이 제품에 처음 적용했다. 원재료와 숙성기간의 차이가 맥주 맛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직접 맛본 더 프리미어 OB는 기존 OB골드라거에 비해 풍부하고 다양한 아로마 향이 느껴졌다. 또 진한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끝맛이 쓰지 않고 아로마 향이 오래 남으면서도 깔끔한 피니시가 인상적이었다.

패키지 디자인도 차별화했다. 잘 익은 보리를 연상케 하는 황금빛 컬러 바탕에 고급스러운 타원형 프레임과 오비맥주의 상징색인 블루 컬러로 제품명을 표시해 정통 올몰트 맥주의 깊고 풍부한 맛을 향상시켰다.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 기존 OB골드라거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되며, 알코올 도수는 5.2도다. 14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3년 내에 1000만 상자 판매가 목표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